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 방문에 즈음한
요아힘 가우크 독일연방대통령
만찬사
2014년 3월 26일
벨뷰 궁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귀빈 여러분,

[알트마이어] 장관님,

[하젤로프] 주총리님,

존경하는 신사 숙녀 여러분,

[경우에 따라서: 한국과 독일의 우호관계를 위해 애쓰고 계신 여러분]

벨뷰 궁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독일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양국의 수도 베를린과 서울은 비행기로 8천 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 각하를 모신 오늘 저는 마치 이웃이 찾아온 것처럼 느껴집니다.

양국의 역사를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는 많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랜 전쟁으로 인한 파과의 경험도 있고, 한국에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분단의 운명과 그로 인한 크나큰 고통이라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있었던 이산가족 상봉처럼 수십 년 동안 서로 만날 수 없었던 가족들의 기쁨과 눈물을 접하면 저는 공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양국은 성공적인 재건, 민주화와 경제 성장과 같이 우리를 기쁘고 강하게 만드는 경험들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육과 부단한 혁신이라는 가치관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적 부는 풍부한 천연자원 덕택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려는 의지를 가진 훌륭한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창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독일인들은 수천 명의 한국 광부 간호사들이 서독의 경제기적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편으로 이분들은 이를 기회로 빈곤과 실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분들과 이들의 후손은 당연히 독일의 일부이며, 그 이후에도 많은 분들이 독일로 와서 정착하였습니다. 그중 몇 분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양국 관계는 세계화와 더불어 더욱 성장하여 양국의 기업, 연구기관, 청소년 간에 많은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독일 국민은 한국이 불과 몇십 년 만에 농업국가에서 하이테크 국가로 변신하고 빈곤을 퇴치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구축한 것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갖고 있습니다. 각하께서 이러한 경험을 지역에서, 또 국제 협력을 통해 전수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한국과 독일이 서로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서로에게 배워야 합니다. 한국과 독일은 오늘날 유사한 도전에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각하,

우리는 모든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최근의 UN 북한 인권 보고서는 북한의 수많은 교화소들에서 벌어지는 상상하기 힘든 잔혹행위에 대해 보고한 바 있습니다. 제가 작년 초 제네바에서 만난 북한 수용소 출신 신동혁씨의 충격적인 증언은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북한의 온갖 도발에도 불구하고 각하께서는 대화의 의지를 버리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갖고 있습니다. 현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통일 문제에 관한 양국의 지속적 의견 교류를 통해 언젠가 있을 한국의 접근에 대비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한국 속담처럼 말입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과 한국과 독일의 우정을 위해 축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